

배포 일시	2023. 1. 31.(화)		
담당 부서	도로국 도로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명희 (044-201-3875)
		담당자	팀 장 이종현 (044-201-3904)
		담당자	사무관 장인호 (044-201-4769)
보도일시	2023년 2월 1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31.(화) 14:00 이후 보도 가능		

국토부-서울시-경기도-한국도로공사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추진을 위해 손 잡는다 -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연계교통망 구축 협약 체결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한국도로공사(사장 대행 김일환)와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월 31일(화) 오후2시 서울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위치) 기흥IC ~ 양재IC, (규모) 26.1km, 지하 4~6차로 (추정사업비) 3.8조원, (사업추진 단계) 예비타당성조사 중('23.1~)

○ 업무협약에 참여한 4개 기관은 경부 지하고속도로의 차질 없는 추진, 연계 교통망 구축 방안,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지하도로 등과 양재IC 인근의 효율적 연계방안, 상부공간 활용방안 마련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더불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이슈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협약 체결 기관과 주요 지차체들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서울특별시(안전총괄관), 경기도(건설국), 성남시(교통도로국), 용인시(교통건설국), 한국도로공사(기획조정실)

- 실무협의체에서는 지하 고속도로의 시·종점 인근에서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효율적인 연계 교통망 구축·운영 방안, 지하 고속도로 건설로 도로 용량에 여유가 발생하여 상부 활용이 가능한 구간에 대한 상부활용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의 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 협력 체계가 만들어져 기관 간 원활한 협의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면 타당성 평가,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7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수도권 간선도로망의 중심축인 경부 지하고속도로인 만큼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상호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이라면서,
 - “앞으로 사업 추진과 함께 지하고속도로 안전 강화, 상부활용 방안 등 주요 이슈들에 대해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밝힐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장은 “국토교통부 사업과 연계하여 상습정체, 도시 공간 단절 등을 해소하기 위한 새 길목을 열고 공간 재창조를 통해 매력 도시 서울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것” 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담당 부서 <총괄>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지하고속도로팀)	책임자	과 장 한명희 (044-201-3875)
		담당자	팀 장 이종현 (044-201-3904) 사무관 장인호 (044-201-4769)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책임자	과 장 이승석 (02-2133-8060)
		담당자	팀 장 전기현 (02-2133-8062)
	경기도 도로정책과	책임자	과 장 고태호 (031-8030-3850)
		담당자	팀 장 김수정 (031-8030-3851)
	한국도로공사 조사팀	책임자	팀 장 곽종수 (054-811-1503)
		담당자	차 장 이창희 (054-811-1578)

